



다시 대한민국!
새로운 국민의 나라

※엠바고 : 런던 현지시간 22:30 이후 보도 가능 배포 : 2023년 11월 20일(월)

한영 ‘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’ 로의 격상 - 한영 간 미래 협력 방향을 담은 ‘다우닝街 합의’ 채택 -

영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방문 기간 중 리시 수낙 총리와 양국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한영 간 미래 협력 방향을 담은 ‘다우닝街 합의(Downing Street Accord)’를 채택하고, 양국 관계를 기존의 ‘포괄적·창조적 동반자 관계(Broad and Creative Partnership)’에서 ‘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(Global Strategic Partnership)’로 격상함으로써, 향후 다양한 분야에 걸쳐 양국 간 협력을 심화시키기로 합의할 예정입니다.

다우닝街 합의는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양국의 공동 입장을 강조하는 한편, 우크라이나 사태, 인도-태평양, 중동지역 정세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대한 공동 의지도 담을 것입니다. 또한 양국은 국제사회에서 규칙기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, G20 및 G7 등 다자 무대에서의 공조에도 합의할 예정입니다.

특히,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, 양국은 ‘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’ 체결을 통해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, 방위력 협력 파트너십 의향서 및 방산 공동수출 MOU 체결을 통해 방산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. 아울러, 합동 훈련 확대와 함께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순찰을 추진하는 등 국방·안보 분야 협력을 증진해 나갈 것입니다.

아울러, 양국은 △기존 한영 FTA를 개선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하며, △미래의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, 양국 간 반도체 협력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. 양국 정상은 거시 경제 이슈 및 상호 투자촉진 논의를 위한 경제 금융 협력방안과 함께 AI, 디지털, 원전, 우주과학, 바이오, 양자 기술, 해상풍력, 청정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의 경제협력을 논의하면서, 기후위기를 포함한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천명할 것입니다.

이번 ‘다우닝街 합의’ 채택 및 ‘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’로의 격상은 한영 양국이 140년간 다져온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, 양국 미래세대를 위해 양국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<끝>